

정신과에 대한 한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태도조사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아산재단 서울중앙병원 정신과학교실
한 오 수 · 김 창 윤 · 이 철 · 박 인 호 · 박 희 관

=Abstract=

A Preliminary Study of the Senior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s Psychiatry

Oh-Su Han, Chang-Yoon Kim, Chul Lee, In-Ho Park, Hee-Gwan Park
Department of Psychiatry, University of Ulsan College of Medicine, Asan Medical Center

Th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s psychiatry are important as they influence recruitment to psychiatry and clinical practice.

In order to evaluate the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s psychiatry, the authors administered a questionnaire to 70 senior student volunteers of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psychiatrists are not regarded by most medical students as unclear thinkers.

Medical students don't think that psychiatrists abuse patients' legal rights, treat only relatively healthy patients.

Most medical students affirm the importance of dealing with their patients' emotional problems.

But, the roles of psychiatrists are confused with those of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Psychiatry, as a vocation, is not regarded by most medical students as unscientific, imprecise, ineffective and low in status.

Most medical students don't agree that stigmatization or pressure to choose another field are common.

This study shows that most senior medical students are favorable about psychiatrists and psychiatry.

Key Words: Attitude, Psychiatry

I. 서 론

의대생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는 향후 전문과목 선택뿐만 아니라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치료 및 자문의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조사는 정신과 분야에 있어서 매우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최근 의료 전문과목의 세분화와 더불어 전문 의가 되려는 의대생들은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의 정신과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

므로 의대생들이 정신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를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지금까지 국내에서는 1970년대부터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태도에 관한 연구,¹⁻¹⁶ 정신증상에 대한 정신과 의사의 태도 조사,¹⁷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신과 의사의 태도조사,¹⁸ 정신병에 대한 치료진의 태도조사,¹⁹ 정신병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태도조사,^{20, 21} 종교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22, 23} 정신의학 임상실습교육이 의대생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²⁴ 정신장애에 대한 간호학생들의 태도에 관한 연구²⁵등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의대생들이 구체적으로 정신질환자뿐만 아니라 정신과 의사와 직업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외국의 경우 지금까지의 연구문헌들을 개괄한 Buchanan과 Bhugra²⁶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가 부정적인 편이라고 한다. 즉, 정신과 의사가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보이기는 하지만

모호하게 사고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며, 정신질환자들을 가까이하기가 쉽지 않고, 직업으로서의 정신과도 비과학적이고 비능률적이라고 보는 견해였다.

이에 저자들은 정신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태도를 예비적으로 조사함으로써 향후 심도있는 연구와 바람직한 정신과 교육의 기초자료로 쓰고자 한다.

II. 대상 및 방법

정신과 임상실습을 마친 S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수업전 본조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여 자원응답한 70명(전체 223명)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Arthur C. Nielsen III²⁷이 만든 것을 저자들이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자료처리는 각각의 문항에 응답한 학생들의 빈도를 계산하여 그 결과를 표로 제시하였다.

III. 결 과

Table 1. Attitudes of Medical Students towards Psychiatry (N=70)

Questions	% of Students					Missing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Overall merits of the field of psychiatry						
1. "Psychiatry has advanced considerably in recent years in the biological treatment and understanding of schizophrenia and depression."	17.14	32.86	30.00	17.14	2.86	
2. "Psychiatry is a rapidly expanding frontier of medicine."	4.29	21.43	41.43	30.00	2.86	
3. "Psychoanalysis is a powerful method for understanding human behavior."	18.57	47.14	22.86	11.43	0	
4. "Psychiatry is unscientific and imprecise."	1.43	5.71	35.71	42.86	12.86	1.43
Efficacy						
5. "If someone in my family was very emotionally upset and the situation didn't seem to be improving, I would recommend a psychiatric consultation."	18.57	50.00	17.14	12.86	1.43	
6. "Psychiatric consultations for medical or surgical patients are only rarely helpful."	0	2.86	10.00	61.43	25.71	

정신과에 대한 한 의과대학 졸업반 학생들의 태도조사

Questions	% of Students					
	Strongly Agree	Agree	Neutral	Disagree	Strongly Disagree	Missing
Role definition and functioning of psychiatrists						
7. "Entering psychiatry is a waste of a medical education."	0	2.86	0	44.29	52.86	
8. "Today's physician does not have time to deal with patients' emotional problems."	0	5.71	2.86	27.14	64.29	
9. "With few exceptions, clinical psychologists and social workers are just as qualified as psychiatrists to work with emotionally disturbed persons."	1.43	10.00	52.86	28.57	5.71	1.43
10. "Psychiatrists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people better than the average physician."	11.43	38.57	38.57	8.57	2.86	
11. "Psychiatrists are fuzzy thinkers."	0	1.43	25.71	60.00	12.86	
12. "Psychiatrists are too frequently apologetic when teaching psychiatry."	2.86	12.86	24.29	54.29	5.71	
13. "Psychiatrists tend to overanalyze human behavior."	0	44.29	32.86	20.00	1.43	1.43
Possible abuses and social criticisms						
14. "Psychiatrists frequently abuse their legal power to hospitalize patients against their will."	0	5.71	42.86	44.29	4.29	2.86
15. "Psychiatrists spend too much time seeing patients who don't need their care, while ignoring the problems of those most in need."	0	5.71	32.86	55.71	4.29	1.43
16. "On the average, psychiatrists make less money than other physicians."	4.29	22.86	47.14	24.29	1.43	
Career and personal rewards						
17. "Within medicine, psychiatry has high status."	1.43	11.43	58.57	25.71	2.86	
18. "Most nonpsychiatric faculty and house staff at my medical school are critical of psychiatry."	4.29	4.29	40.00	38.57	1.43	1.43
19. "If a student is interested in psychiatry as a career, other students or faculty will try to dissuade him or her."	1.43	7.14	12.86	62.86	15.71	
20. "If a student expresses interest in psychiatry, he or she risks being associated with a group of other would-be psychiatrists who are often seen by others as odd, peculiar or neurotic."	1.43	5.71	11.43	57.14	22.86	1.43
21. "Psychiatry is attractive as a discipline because it is more intellectually comprehensive than other medical careers; it involves many fields of study including biology, psychology, sociology, history, philosophy and literature."	24.29	58.57	12.86	2.86	1.43	
22. "Psychiatry courses are too easy, they should be more demanding and on a par with the difficulty of other courses."	0	11.43	18.57	57.14	11.43	1.43

선문지의 각 문항에 대한 의대생들의 동의 정도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1. 의대생들의 50%는 정신과가 꾸준히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의학의 최첨단을 달리고 있다고 동의한 의대생들은 26%에 지나지 않았고 41%가 중립적이었다. 66%는 정신분석에 대해서 긍정적 반응을 보였고, 56%는 정신과가 비과학적이고 애매한 학문이라는 견해를 부정하였다.

2. 정신과적 치료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69%의 의대생들이 가족의 정서적인 문제를 정신과 의사와 상의 하겠다고 했으며, 87%는 내과 또는 외과 환자에 대한 정신과 자문의 도움을 받겠다고 하였다.

3. 정신과 의사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문항들 중, 97%의 의대생들은 정신과 교육이 시간낭비라는 견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90%는 환자의 감정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50%의 의대생들은 정신과 의사가 일반의사에 비해 사람들을 더 잘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53%의 의대생들은 임상심리학자 또는 사회사업가도 정신과 의사만큼 감정적으로 동요된 환자를 잘 다룰 수 있다라는 견해에는 중립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신과 의사는 모호하게 생각하고 자주 변명을 한다는 견해에 73%는 동의하지 않았지만, 44%는 인간행동을 과잉분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4. 정신과 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판에 대해서는, 49%의 의대생들이 정신과 의사는 법적 권한을 남용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지만, 43%는 중립적이었다.

60%는 상대적으로 건강한 환자들만 본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다.

또한 타과의사들과 수입을 비교할 때 47%가 보통이라고 보았고, 그 나머지의 의대생들은 그렇다와 그렇지 않다로 양분되었다.

5. 29%의 의대생들은 의학내에서의 정신과의 위치가 높다는 견해에 반대하였으며 59%는 중립적이었다. 40%는 정신과 이외의 스태프가 정신과를 비난한다는데 부정하였지만, 40%는 중립적이었다.

또한 79%는 주위에서 정신과 지망을 포기하도록 한다는 견해를 부정하였다.

83%의 의대생들은 정신과에 매력을 느끼고, 69%는

지적성취를 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80%가 정신과에 관심을 보이는 것을 사회적으로 낙인하는데 반대하였다.

IV. 고 찰

정신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태도는 세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태도이며, 둘째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태도이고, 셋째는 직업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이다.

이러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로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부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는 의대생일지라도 직업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수 있기 때문이다.²⁶

본 연구에 사용된 Arthur C. Nielsen III의 설문지는 정신과 의사에 대한 태도와 직업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를 중심으로 제작된 것이다.

Nielsen과 Eaton²⁷은 의대생들이 불때 정신과 의사는 과잉일반화하는 경향이 있고 종종 신비스런 면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Yager²⁸은 미국의 의대생들이 대체로 정신과 의사의 사고는 불명확하다는데 동의한다고 했다.

Furnham²⁹도 런던의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Harris³⁰는 내과 및 외과 의사와 정신과 의사에 대한 의대생들의 견해를 비교할 때, 정신과 의사들이 모호하게 사고하고 정서적으로 불안정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고 하였다. 그렇지만, 긍정적인 측면들로 정신과 의사들이 지적인 문제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고, 인간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치료에 있어 전인적으로 환자를 대하려 하며, 타과의사들보다 덜 교조적인 치료자세를 보인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73%가 모호하게 사고한다는 견해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반수정도의 의대생들은 정신과 의사가 인간행동을 지나치게 일반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직업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한 연구도 많이 시행되었는데,^{28, 29, 31, 32} 대체로 정신과는 비과학적이고 애매한 학문이며 비능률적이라고 보았다.

Yager²⁸의 연구에서 보면 약 20%의 의대생들은

정신과 교육을 쓸데 없는 시간낭비라고까지 생각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정신과 교육이 시간낭비라고 생각하는 의대생들은 거의 없었다(3%). 그렇다면 이런 의대생들의 견해는 얼마나 일관성이 있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는 여타의 전문과목들과 비교하여 정신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견해가 그들이 언제 그리고 어디서 의학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임상교육이 진행되면서 의대생들의 태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는 점이다.

Nielsen³⁵은 수년을 종단적으로 추적하여 볼때, 정신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태도에 변화가 있으며 정신과 지원에 있어서도 하향추세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미국내에서의 지역간 차이에 대한 연구나, 영국과 비교할 때 의대생들의 태도에 있어 차이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1970년대에 정신과 지원에 있어 하향추세였지만, 당시는 개업의에 대한 선호가 뚜렷하였던 시기로 전문의에 대한 선호가 낮았었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또한 의대생들이 볼때 정신과가 수입이 적지만, 이것이 지원의 하향추세에 원인으로 작용한 것 같지는 않다고 분석하였다.^{26, 28}

의대생들의 임상 경험이 정신과에 대한 태도와 어떠한 관련성이 있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았다.

Bruhn과 Parsons³⁴에 따르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정신과에 대한 선호가 감소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Walton³⁵과 Yagger등²⁸에 따르면, 정신과 교육이 직업으로서의 정신과 선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O'Mahony³⁶도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대생들의 태도에 정신과 교육이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하지만, Ghadirian과 Engelsmann³⁷은 캐나다에서 임상실습 전후로 168명의 의대생들을 개별면접한 결과를 토대로 볼때, 임상실습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의대생들의 태도를 호전시키고 정신과에 대한 선호도 높였다고 하였다. 또한, Burra등³⁸, Wilkinson등³⁹도 같은 보고를 하였다.

Rezler⁴⁰은 정신과 교육이 태도에 미치는 효과는 별로 오래가지 않는다고 하면서, 대체로 정신과 임상실습이 의대생들의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는 하지만, 확고히 오래동안 지속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로 채와 조²⁴는 4주간의 정신의학 임상실습후 의대생들의 정신병환자에 대한 개념 및 태도가 매우 긍정적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군은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로 이미 행동과학 통합교육과 정신과에 대한 강의와 임상실습을 마쳤다. 따라서, 시간차별 두고 임상실습 전후로 나누어 정신과에 대한 태도조사를 시행하여 비교해 보는 것도 의미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Coker등⁴¹에 따르면 의대생들의 54%는 전문과목을 선택하는데 의대교수들의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대생들은 정신과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본 연구의 학생들이 속한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들이 어느 정도 이런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교수들을 동일화하고 정신과에 대해 좋은 태도를 가질 수 있도록 정신과 교육에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본 논문의 제한점들을 지적한다면, 첫째로 자원응답한 학생들의 표본이 적고 한개의 대학으로 국한되어 일반 의대생들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응답한 학생들이 어떤 전문과목을 선호하느냐에 따라 정신과에 대한 태도조사의 응답율과 반응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대한의학협회의 1993년도 전국회원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등록된 전체 전문의중에서 정신과 전문의가 차지하는 비율은 2.21% 밖에 되지 않지만, 박 등⁴²의 연구에서 보면 정신과를 선호하는 의대생들의 비율이 18.1%에 달했다. 그외에 정신과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이 충분히 고려되지 못했다는 점과 지필을 통한 설문지 방식의 태도조사가 진정한 태도를 반영해 주는가 하는 점 등이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방법론적으로도 개선하여 면접등을 통해 자료를 풍부하게 하고, 상기의 여러 제한점들을 극복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V. 요약

정신과에 대한 의대생들의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 서 정신과 임상실습을 마친 S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들 중에서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자원 응답한 70명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의대생들의 56%는 정신과가 비과학적이고 애매한 학문이라는 견해를 부정하였다.

또한 90%는 환자의 감정적 문제를 다룰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타과의사들과 수입을 비교할 때 반수정도가 보통이라고 하였다. 83%의 의대생들은 정신과에 매력을 느끼고, 69%는 지적 성취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정신과 의사의 역할과 임상심리학자나 사회사업가의 역할을 구분하는데는 혼동이 있었다.

결과는 대부분의 의대생들이 정신과 의사와 직업으로서의 정신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참고문헌

1. 김광일, 원호택: 한국민간정신의학 I - 농촌의 정신질환 개념 및 치료에 관한 현지조사. 신경정신의학 1972;11(2):85-98.
2. 오석환, 박조열, 박희주, 김정성, 이수정: 정신병에 대한 가족들의 태도에 관한 고찰. 신경정신의학 1972;11(3):177-186.
3. 김광일: 한국에서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와 인식도. 대한의학협회지 1974;17(3):175-178.
4. 김광일, 원호택, 장환일, 김현수: 정신질환에 대한 서울인의 견해조사. 대한의학협회지 1974;17(12):959-966.
5. 김광일, 원호택, 이정호 등: 문화변천에 따른 정신질환개념 및 치료법에 관한 견해조사. 신경정신의학 1975; 14(4):417-427.
6. 김용식, 조수철, 김이영 등: 농촌 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지식 및 견해. 신경정신의학 1975;14(4):365-375.
7. 박조열: <심포지움> 한국에서의 정신의학-일반인의 정신과 환자에 대한 태도와 인식도.

- 신경정신의학 1975;14(4):491-494.
8. 정경천, 이부영: 농촌주민의 무속치료에 대한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1975;14(4):405-416.
9. 황익근: 농촌주민의 정신병의 원인에 대한 개념과 치료의 선택. 중양의학 1976;30:479-485.
10. 원호택, 김명정, 김광일: 농촌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신경정신의학 1977;16(2):113-123.
11. 이무석: 도시주민의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 전남의대잡지 1980;17(2):417-427.
12. 이귀행: 도시주민의 정신질환 개념에 관한 조사-전남 여천 화정면을 중심으로. 신경정신의학 1982;21(3):375-381.
13. 이무석: 정신증상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조사. 보건장학회논문집 1982;8:134-139.
14. 이무석: 한국인의 정신질환에 대한 개념. 전남의대잡지 1982;19(4):441-450.
15. 김용식, 양익홍, 김창운, 하규섭, 이부영: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조사를 위한 예비적 연구. 서울의대정신의학 1988;13(1):27-36.
16. 김광일, 서혜희, 박용천, 이승탁, 김이영: 정신질환에 대한 일반인의 견해조사. 정신건강연구 1989;8:118-132.
17. 김광일, 원호택, 진성태 등: 정신증상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1973;12(1):41-52.
18. 권영재: 정신질환에 대한 비정신과 의사의 개념 및 태도조사. 신경정신의학 1979;18(3):339-345.
19. 김광일, 박용천: 정신병에 대한 치료진의 태도조사. 정신건강연구 1984;2:241-261.
20. 박용천, 김광일: 정신병에 대한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태도 조사. 신경정신의학 1983;22(2):218-232.
21. 안동현, 이부영: 지역사회 지도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반응. 서울의대정신의학 1986;11(4):281-297.
22. 이부영, 권택술: 무업자들의 정신질환에 대한 반응-서울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의대정신의학 1986;11(4):298-310.
23. 이부영, 이나마: 종교인의 정신질환에 관한 견해와 반응. 신경정신의학 1988;27(2):333-345.

24. 채인영, 조두영:정신의학 임상실습교육이 정신질환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986;25(1):167-182.
25. 김창운, 김용식, 이부영:정신과 교육이 정신장애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1988;27(1):96-107.
26. Buchanan A, Bhugra D:Attitude of the medical profession to psychiatry. Acta Psychiatr Scand 1992;85:1-5.
27. Nielsen AC, Eaton JS:Medical students' attitudes about psychiatry. Arch Gen Psychiatry 1981;38:1144-1154.
28. Yager D, Lamotte K, Nielsen A, Eaton J:Medical students' evaluation of psychiatry: a cross country comparison. Am J Psychiatry 1982;139:1003-1009.
29. Furnham AF:Medical students' beliefs about nine different specialties. Br Med J 1986;293:1607-1610.
30. Harris CM:Medical stereotypes. Br Med J 1981;283:1676-1677.
31. Moos RH, Yalom ID:Medical students' attitudes toward psychiatry and psychiatrists. Ment Hygiene 1966;50:246-256.
32. Das MP, Chandrasena RD:Medical students' attitude towards psychiatry. Can J psychiatry 1988;33:783-787.
33. Nielsen AC:The magnitude of declining psychiatric career choice. J Med Educ 1979;54:632-637.
34. Bruhn JG, Parsons OA:Medical student attitudes toward four medical specialties. J Med Educ 1964; 39:40-49.
35. Walton HJ:Personality correlates of a career interest in psychiatry. Br J Psychiatry 1969;115:211-219.
36. O'Mahony PD:An investigation of change in medical students' conceptualization of psychiatric patients due to a short training course in psychiatry. Med Educ 1979;13:103-110.
37. Ghadirian AM, Engelsmann F:Medical students' attitude towards psychiatry: a ten year comparison. Med Educ 1982;16:39-43.
38. Burra P, Kalin R, Leichner P et al.:The ATP 30-a scale for measuring medical students' attitudes to psychiatry. Med Educ 1982;16:31-38.
39. Wilkinson DG, Greer S, Toone BK:Medical students' attitudes to psychiatry. Psychol Med 1983;13:185-192.
40. Rezler AG:Attitude changes during medical school:a review of the literature. J Med Educ 1974;49:1023-1030.
41. Coker RE, Back KW, Donnelly TG, Miller N: Patterns of influence:medical school faculty members and the values and specialty interests of medical students. J Med Educ 1960;35:518-527.
42. 박희관, 이철, 한오수:의대생들의 전문과목 선호와 용의 심리학적 유형에 관한 고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제 36 차 학술대회 초록집, 서울, 대한신경정신의학회, 1993;p195